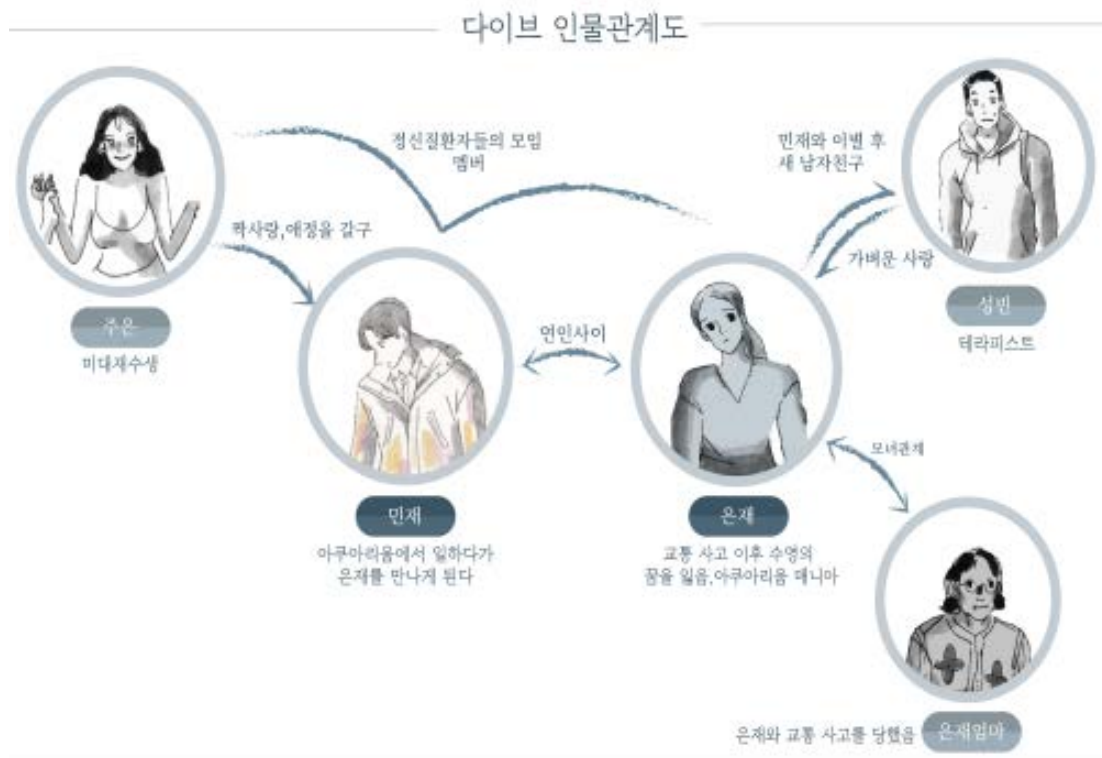


드라마 제작 기획서

프 로 그 램 명	다이브	방송시간대	오후 10시 ~ 11시(60분)
주 시청자층		20~40대	
장 르	로맨스	원작 (원작자)	이토록 보통의 (캐롯)
팀 원	책임 프로듀서	박이은	
	창작 기획담당 프로듀서	양하영	
	마케팅 담당 프로듀서	서한비	
주 제	몰이해에서 이해로 나아가는 과정을 통해 각자의 삶과 관계를 되돌아보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찾아가 며 성장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		
기 획 의 도	가끔 물이 넘치는 것을 알면서도 붓는 것을 멈출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도 그렇지 요. 물이 넘쳐 테이블 보를 적시고 카펫을 엉망으로 만드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는 것. 그렇게 넘쳐버린 물에 잠겨 버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장하게 되는 인물들의 사랑이야기는 바로 당신의 이야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이브”는 당신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당신의 사랑을 위로하는 따뜻한 로맨스 드라마입니다.		
시 놉 시 스	수영선수의 꿈을 가지고 있던 은재는 부모의 사고 이후 꿈을 잃고 죽은 엄마의 환각을 보며 살아갑니다. 은재는 정신질환자 모임에서 무성애자 민재를 만나 사랑을 하지만 그들이 겪는 갈등은 각자의 관계와 삶 에 대한 고민과 질문을 가져오죠. 몰이해에서 이해로, “다이브”는 사랑에 대한 본질적 고민을 통해 성장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강은재 (무직, 26)

“사랑이 아니어도 괜찮아” 엄마 아빠를 잃고 엄마의 환각이 보이는 정신 질환을 앓는 은재. 수영 선수를 꿈꿨지만 포기하게 된다. 정신질환을 극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민재를 만난다. 사랑에 빠지고, 민재에게서 자신이 에이 로맨스라는 이야기를 듣는다. 그럼에도 만남을 이어가다 결국 헤어지는데. 다른 사랑을 해도 민재를 만날 때처럼 안정감을 찾을 수 없다. 민재와의 관계를 통해 성장 하고 다시금 예전처럼 수영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민재 (아쿠아리움 전시 팀장, 29)

“착한 사람이라도 되려고” 사랑을 할 줄 모른다. 말 그대로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 어머니의 성화로 정신질환을 극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나가게 되는데, 자신을 별로라고 이야기하는 은재, 자신과 사랑에 빠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즐거워 데이트를 한다. 하필, 은재는 민재가 에이 로맨스인 것을 모르고 자신을 좋아한다고 이야기한다. 외로워서, 사람과 함께하고 싶지만, 결국 상대방을 생각해서 거리를 유지하면 상대방은 아프기만 하다. 자신도 아프다. 자신이 제일 아프다.

	<p>임주은 (대학생, 23)</p> <p>“거 봐, 나 사랑하잖아” 민재를 모임에서 처음 봤을 때, 사랑하게 되었다. 사랑을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민재의 관심을 끌어보려고 어떻게든 노력한다. 그런데 연락을 더 할수록 민재는 멀어지는 느낌이다. 어떻게 민재와 더 가까워질 지, 나를 사랑해줄 지. 주은은 결국 자해를 다시 시작한다. 자해를 처음 시작했던 이유는 과거에 사랑하는 연인을 잃은 것의 원인을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은재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점점 자신이 처한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진다. 결국에는 대학의 졸업을 앞두고 유학 준비를 해 유학 길에 오른다.</p> <p>한성빈 (상담가, 27)</p> <p>“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은재를 마을에서 처음 마주치고, 궁금했다. 소문의 그 여자. 결국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다가갔다. 사과를 잔뜩 사던, 쿠키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볼수록 점점 더 보고 싶어진다. 연애를 시작하고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녀는 나를 사랑할까? 전 애인에 대해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해 줄 필요는 없었는데..... 그런데 어느 하루 은재가 서울에 다녀오더니 민재와 다시 만나겠다고 이야기한다. 아무리 봐도 사랑이 아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고집한다, 사랑이 아니어도 괜찮아...? 마을에서 마주친, 새로 이사 왔다는 여자, 동그란 얼굴이 매력적이다.</p>
마케팅 포인트	<p>마케팅의 목표 설정</p> <p>“어디에도 없는, 모두의 이야기”라는 헤드카피를 내걸고 있는 드라마 ‘다이버’는 성소수자, 정신 질환자인 주인공들의 사랑을 통한 성장이야기를 통해 ‘보통의 사랑’이라는 보편적인 정서를 전달하고,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을 마케팅의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p> <p>드라마 ‘다이버’는 지금 사회에 필요한 이야기에 주목하며, 사랑과 성장이라는 보편적인 정서를 전달함으로써, 서로 다른 개인의 이야기에서 우리의 이야기로 나아가고, 마케팅 전략을 활용하여 같이 이야기하고 공감하는 창을 만들어보고자 한다.</p> <p>마케팅 전략</p> <p>1. 런칭 단계(방영 전)의 마케팅 전략</p> <p>1.1. 각종 커뮤니티 플랫폼, 바이럴 소스 활용</p> <p>– 드라마 ‘다이버’ 홈페이지와 전용 SNS를 만들어 홍보에 활용하고, ‘다이버’의 원작 ‘이토록 보통의’에 대한 사람들의 리뷰나 반응과 같은 바이럴 소스를 활용하여 홍보한다.</p> <p>1.2. 공감 캠페인 : 시청자 대상 사연 공모</p> <p>– 드라마에서 나오는 ‘보통의 사랑’이라는 정서를 부각시키고, 시청자들의 공감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이다. 먼저, 예비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보통의 사랑’에 대한 익명의 사연을 ‘다이버’의 웹사이트와 SNS를 통해 공모한다. 이를 통해 모인 사연들 중 일부를 선정하여, 드라마 한 편이 끝날 때마다, 주연배우가 사연을 읽어주는 영상 클립을 삽입한다.</p>

	<p>– 방송이 끝난 직후에 웹사이트에 배우가 읽은 사연의 영상 클립을 업로드한다. ‘시청자 대상 사연 공모’는 시청자들의 공감을 높일 수 있다는 것과 동시에, 드라마 초반의 예비 시청자를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효과를 갖고 있다.</p> <p>2. 운영 단계(방영 중)의 마케팅 전략</p> <p>2.1. 드라마 SNS 운영</p> <p>– 드라마 ‘다이버’ 홈페이지와 전용 SNS를 활용하여, 회차별 클립 영상과 ‘시청자 대상 사연 공모’ 영상을 지속적으로 업로드하고, 시청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원작 ‘이토록 보통의’에서부터 비롯된 입소문을 이용한 바이럴 소스를 활용하여 홍보한다.</p> <p>2.2. 오프라인 이벤트 : 이토록 보통인 사람들의 모임</p> <p>– ‘다이버’에 나오는 ‘정신질환을 극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과 같이 ‘이토록 보통인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어, 시청자들이 자신의 성적 지향과 정신 질환에 대해 알아보며, 스스로를 규정해보고, 자신에 대해 직접 담소하는 장소를 마련한다는 취지의 오프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p> <p>– 먼저, 드라마 공식 사이트와 SNS를 통해 이벤트에 응모한 시청자들을 무작위로 추첨하여, ‘이토록 보통인 사람들의 모임’에 초대될 몇 명의 사람들을 뽑아, 원작 작가 캐롯과 주연 배우, 감독과 함께 소규모 식사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마련한다. 이 오프라인 이벤트의 핵심은 당첨자(시청자)가 주가 되어 자신의 이야기를 진행한다는 것이다.</p> <p>– ‘이토록 보통인 사람들의 모임’은 성소수자의 인권과 정신질환 등의 시의성이 높은 문제에 대해 얘기해보는 장을 마련할 수 있으며, 시청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드라마에 공감하고 애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는 기대효과를 갖고 있다.</p> <p>2.3. PPL 및 협찬</p> <p>– 드라마 ‘다이버’에서 주된 배경의 역할을 하는 ‘아쿠아리움’을 협찬 받는다. 드라마를 통해 ‘아쿠아리움’을 잘 어필할 경우, 방영 후 ‘다이버’ 촬영지로 시청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끌 수 있다는 기대 효과를 갖고 있다.</p>
유사사국내외프로로	<p>유사 프로그램 1 《괜찮아 사랑이야》</p> <p>스터디 주제</p> <p>– ‘다이버’ 속 극중 인물들이 가진 특수한 상황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통해 시청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p> <p>유사성 / 선정 이유</p> <p>– 정신 질환을 소재로 했으며, 상처를 가진 이들의 사랑이야기를 통해, 시청자들의 공감을 유도했다는 점에서 ‘다이버’와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p> <p>차별성</p>

그 램 과 의 유 사 성 의 별 성	<p>_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주인공을 타고난 외모의 배우로 표현하여, 시청자로 하여금 1차적 호감을 끌었습니다. 또한, 등장인물을 충분히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묘사하여, 시청자들이 공감 가능한 정도의 정신질환을 묘사했습니다.</p> <p>기획에 시사하는 점</p> <p>_ 극심한 스트레스로 사람들이 마음의 안정과 휴식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트렌드와 이를 위해 활용되는 드라마의 용도를 잘 파악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시청자들에게 극중 인물들이 마음의 병을 치유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어, 위안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시청자들이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버리고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고자 했다는 것도 눈여겨봐야 할 점입니다.</p> <p>유사 프로그램 2 《그들이 사는 세상》</p> <p>스터디 주제</p> <p>_ 등장인물의 미묘한 감정선과 복잡한 내면을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는가? 드라마에서 제시되는 철학적 질문에 대한 시청자들의 거부감을 줄이고, 공감과 몰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p> <p>유사성 / 선정 이유</p> <p>_ 인생에 대한 진지하고 다양한 고민을 이야기하는 드라마로, 뛰어난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드라마가 내포하는 감정, 철학적인 주제를 내레이션으로 풀어내고, 매 회차별 제목으로 제시하는 등으로 시청자들에게 각인시키려는 시도는 ‘다이버’에도 적절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p> <p>기획에 시사하는 점</p> <p>_ 사랑에 대한 보편적인 고민부터 시작하여, 사랑을 탐구했으며, 이를 내레이션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고, 시각적 표현에서 벗어난 사유를 유도함과 동시에 공감을 끌어냈습니다. 또한, 드라마에서 제시하는 철학적인 질문들을 매 회차별 제목으로 설정하여 시청자들에게 어렵지 않게 보여주었고, 이로써 마니아층을 형성했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할 점입니다.</p>
전 체 구 성	<p>1. 서사가 없는 음악</p> <p>민재는 아쿠아리움에 매주 오는 은재를 보고 호기심을 갖게 된다. 은재는 민재를 정신질환을 극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처음 보게 되었다. 민재는 무성애자다, 은재에게 인간적인 호감을 가질 수는 있지만 사랑할 수 없다. 이를 모름에도 은재는 민재를 사랑하게 될까 경계한다. 모임의 어느 날, 은재는 서사가 있는 음악이 별로라고 이야기하는 민재를 사랑하고 싶어진다. 하지만 모임에는 민재를 좋아하는 주은이가 열성적이었고, 은재가 포기를 앞 두었을 때 민재가 함께 영화를 보러 가자고 제안한다.</p> <p>2. 정신질환을 극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p> <p>은재는 민재와 데이트를 하며 점점 사랑을 확인한다. 하지만 민재는 관계 진전에 관심이 없어 보였고, 은재가 먼저 사귀자고 이야기한다. 민재는 당황하며 자신이 에이 로맨틱, 알로 섹슈얼이라고 설명한다. 모임에 참여하게 된 이유도 그 때문이라 설명하는 민재. 화가 나지만 은재는 그를 이미 너무 사랑하게 되어버렸고, 결국 연인 관계가 된다. 일상을 공유하다가 아쿠아리움에 대해 이야기하게 된 민재와 은재. 은재는 곤혹스러워 하</p>

며 수영선수를 꿈꿨던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해준다

3. 젊은 우리 사랑에게 쓰는 편지

은재는 수영을 하지 못하게 되었던 때를 기억하며, 민재와 헤어지게 되면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되리라 확신한다. 자신이 아니라 은재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라며 설득하는 민재를 볼 때마다, 이미 은재 자신은 물에 잠기듯이 사랑에 잠겨 숨을 쉴 수 없다고 느낀다. 연인과 헤어지면, 각자 편지와 젊은 우리 사랑을 듣겠다고 이야기하는 은재와 민재. 함께 민재의 집에 살게 된 은재는 이사하며 민재의 집 안에 있는 물이 없는 수영장을 보게 된다.

4. 너의 서른 번째 조각

은재는 새로운 남자와 소개팅을 하게 된다. 처음 만난 남자에게 사랑해라는 말을 듣고 울음을 터트리는 은재. 밤을 같이 보내고 왔음을 민재에게 이야기해도, 화를 내지 않는 민재를 보며 물속에 잠기는 듯한 기분이 드는 은재. 소설 <향수>를 읽으며 부랑자들처럼, 오롯이 사랑에 비롯하여 민재를 서른 조각 내어, 자신과 함께 사랑하며 존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민재에게 억지로 사랑해라는 말을 듣고 은재는 헤어진다.

5. 참을 수 없는 사랑의 가벼움

민재와 헤어진 이후 은재는 엄마가 있는 고향으로 내려간다. 엄마와 함께 지내며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는 은재. 민재는 주은의 자해 연락을 받고 주은이를 찾아가게 된다. 자신에 대한 감정이 사랑이라며 민재를 종용하는 주은. 은재는 고향에서 상담가인 성빈이라는 남자를 만나게 된다. 성빈의 끝 없는 구애로 사귀게 되지만 은재는 성빈을 사랑하지 않는다. 과자를 굶고, 성빈을 만나고,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은재에게 어느 날 민재의 연락이 오게 된다. 성빈은 새로운 여자와 맞닥뜨리게 된다.

6. 이토록 보통의

민재의 수술 때문에 보호자로 서울에 올라가게 된 은재는 민재와 대화를 나누며 다시 서울에 올라오기로 마음먹는다. 수술이 끝나고 고향에 내려가서 성빈에게 이별을 이야기하는 은재와, 은재를 설득하는 성빈. 은재는 성빈에게 사고와 엄마, 환각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서울에 올라와 다시 정신질환을 극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나가게 된 은재는 주은이와 만나 따로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자신을 사랑하던 여자친구를 잃게 된 주은이의 이야기를 듣고 은재는 서로 이해하게 된다.

7. 사과 파이

아쿠아리움에 민재를 보러 간 은재는 민재에게 사과 파이를 전달하며, 우리의 관계를 사과 파이라고 부르겠다고 이야기한다. 민재의 퇴근 시간에 맞춰 온 주은이와 함께 셋이서 술을 마신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민재가 좋은 사람은 되지 못해 착한 사람이 되려 포기하는 법을 배웠다고 이야기한다. 은재는 민재가 사랑의 감정을 느끼지 못할 뿐 외로움을 비롯한 모든 감정을 느낀다는 것을 잊은 자신에게 놀란다. 주은이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두 사람. 둘은 일본으로 여행을 간다. 너무 행복한 하루를 보낸 두 사람, 하루의 끝에서 민재가 은재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한다.

<p>8. 다이브</p> <p>꿈에서 놀라며 깨어난 은재, 아침에 민재에게 민재가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서 꿈인 걸 깨달았으며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민재는 정말로 함께 여행을 가자고 제안한다. 제주도 여행을 떠난 두 사람은 즐거운 하루를 보낸다. 숙소 앞 해안가에서 물에 들어가지 않고 수평선을 바라 보는 은재와 옆에 앉아 책을 읽는 민재. 은재는 민재에게 자신과 있을 때는 무언가를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한다. 숙소에 돌아가 욕조에 물을 받고 잠수하는 은재. 민재는 욕조 옆에 앉아 음악을 틀고 사과 파이를 먹는다.</p> <p>9. 황금 물고기</p> <p>서울로 돌아 온 은재는 베이킹 학원에 다니기 시작한다. 민재는 미국 연수 제의를 받게 되고, 은재에게 이야기한다.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거듭 이야기하는 은재에게, 관심이 없을 뿐이라고 일갈하는 민재. 그 주의 정신질환을 극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주은이 나오지 않자 은재는 걱정이 되어 연락한다. 유학을 갈 준비를 하게 되어 바쁘다고 하는 주은. 축하해주고 집으로 돌아 온 은재는 민재가 수영장의 물을 받고는 금붕어 한 마리를 풀어 놓는 것을 보게 된다. 금붕어가 헤엄치듯이 은재는 물에 발을 담그고 물장구를 친다.</p> <p>10. 삶의 반짝거리는 조각</p> <p>2년 후, 은재는 민재와 헤어지게 된다. 시작이 그러했듯이 그저 은재의 사랑이 식어 헤어지게 된 둘. 물이해에서 이해로, 노력하는 과정은 힘들었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 의미 있었음을 깨닫는다. 집 앞 베이커리에서 일을 하고, 수영을 배우러 다니고, 병원도 다니고, 모임에 참여하고, 새로운 사랑을 만나는 은재.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오랜만에 모임에 함께 한 주은. 은재와 주은은 민재가 미국으로 연수를 떠나기 전에 민재를 만나러 아쿠아리움으로 간다.</p>		
회 별	시놉시스	소재목: 시놉시스(3줄 이내)
	트리트먼트	트리트먼트: 씬 별로 정리해야 하지만 이번 과제에서는 15개 주요 씬 (문단으로 나누어)으로 구성
1 회	시놉시스	<p>서사가 없는 음악</p> <p>민재는 아쿠아리움에 매주 오는 은재를 보고 호기심을 갖게 된다. 은재는 민재를 정신질환을 극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처음 보게 되었다. 민재는 무성애자다, 은재에게 인간적인 호감을 가질 수는 있지만 사랑할 수 없다. 이를 모름에도 은재는 민재를 사랑하게 될까 경계한다. 모임의 어느 날, 은재는 서사가 있는 음악이 별로라고 이야기하는 민재를 사랑하고 싶어진다. 하지만 모임에는 민재를 좋아하는 주은이가 열성적이었고, 은재가 포기를 앞 두었을 때 민재가 함께 영화를 보러 가자고 제안한다.</p>
	트리트먼트	<p>“은재야 밥 먹어.”</p> <p>은재는 욕조에서 몸을 일으킨다. 엄마가 건네 준 수건으로 물기를 닦고 민재가 차린 밥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눈다. 잘생기고, 친절하고, 센스 있고, 착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만 빼면 완벽한 나의 남자친구. 은재는 밥을 먹다 민재와의 첫 만남을 회상한다.</p>

	<p>모임에 처음 온 민재를 보고서 은재는 알아차렸다. 사람들에게 관심 없어 보이는 민재의 저 눈, 뺨속까지 자기만 아는 타입. 은재는 항상 저런 사람과 사랑에 빠진다. 사랑에 빠지지 않으려면 멀리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모임의 언니에게 민재가 별로라고 말한 것을 들었을 까봐 은재는 신경 쓴다. 속도 모르고 민재는 웃을 여며주고, 이야기를 걸고 자꾸만 친절하게 군다.</p> <p>모임에 참여한 신입 회원 민재는 은재를 보고 익숙한 얼굴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안다, 저 얼굴, 매주 아쿠아리움에 와 한참을 서서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다. 민재는 내심 반갑지만, 은재는 자신을 모를 테니 모르는 척하기로 한다. 그런데 은재가 자신을 멀리하는 것이 느껴진다.</p> <p>“근데, 나는 음악에 서사가 있으면 안 좋은 것 같아요”</p> <p>이 말을 듣고 은재는 민재를 사랑하고 싶어 졌다. 모임의 쉬는 시간에 음악을 듣고 있던 은재에게 민재가 다가와 음악 이야기를 하던 중이었다. 반면에 은재의 전 남자친구는 서사를 신경 쓰지 않았다. 들려준 음악의 슬픈 내용 때문에 울어도 그는 은재를 이해하지 못했다. 민재라면 자신의 서사도 신경 써 줄 것만 같아... 사실 어쩌면, 그저 민재를 사랑할 핑계거리를 만들어 내고 싶었을 지도 모른다.</p> <p>다만 은재는 모임에서 주은이가 이미 민재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주은은 귀여울 정도로 자신의 감정에 솔직한 모습이다. 은재는 그런 주은이 부럽기도 하다. 민재에 대한 은재의 사랑은 거의 포기한 상태이다. 아니 포기한 상태였다.</p> <p>“모임 끝나고 나랑 영화 보러 갈래요?”</p> <p>민재는 은재와 이야기하는 것이 재미있다. 또 은재라면 자신과 사랑에 빠지지 않을 것 같다. 주은이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티가 난다고 민재는 생각한다. 주은이가 노력하는 것이 느껴진다. 역시 이 남자는 자기 감정만 신경 쓰는 사람이구나 싶다고 은재는 생각한다. 그렇지만 내심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린 것 같아 기쁘다.</p>
--	----------------------------------------------------------------------------------------------------------------------------------------------------------------------------------------------------------------------------------------------------------------------------------------------------------------------------------------------------------------------------------------------------------------------------------------------------------------------------------------------------------------------------------------------------------------------------------------------------------------------------------------------------------------------------------------------------------------------------------------------------------------------------------------------------------------------------------------------------------------------------------------------------------------------------------------------------------------------------------------------------------------------------------------------------------------------------------------------------